

# 『雲英傳』의 媒介詩 연구\*

-宮女들의 漢詩를 중심으로-

金貴錫\*\*

<차례>

- I. 머리말
- II. 賦煙詩와 궁녀
- III. 媒介詩의 기능과 의미
- IV. 맺음말

## I.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조선조 최대의 비극소설이라 할 수 있는 『운영전』은 어쩌면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상케 하는 작품으로써 선비의 궁녀의 사랑이라는 특수한 소재, 그리고 궁중이라는 특수한 배경, 대군과 궁녀라는 특수한 신분들이 엮어내는 비극적 사랑을 그린 고소설 작품이다. 물론 이 작품은 傳奇的 敘述이 바탕이 된 그 장구한 서사적 전개도 흥미롭지만 그에 못지 않게 構成의 主媒介가 詩로 연결되어 詩가 主가 되고, 오히려 스토리의 구성이 詩意에 따라 전개되어지고 있는 점도 이 작품이 갖는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운영전』 구성에서 매개시로 나타나고 있는 漢詩는 모두 18수이다. 이를 形態別로 보면 五言絶句 10수, 七言絶句 3수, 五言律詩 2수, 七言律詩 3수로 되어 있다. 이 중 15수가 작중인물인 궁녀들의 作이다. 이들 시는 대개 궁녀가 갖는 束縛과 인간적 本能, 그리고 大君 사이의 上下階層間의 葛藤을 표현하고 있다. 본고는 『운영전』의 서사구성상 그 핵심모티프로 작용하고 있는 궁녀들의 이러한 漢詩를 통해서 당시대 궁녀들의 삶과 의식을 조명해보고 또 작품 속에서 이들 媒介詩가 갖는 기능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II. 賦煙詩와 궁녀

먼저 이 작품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대략적인 줄거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외롭고 빈한하게 지내는 총각 선비 柳泳은 승경지로 유명한 壽城宮 후원의 숲 속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春景을 즐기다가 잠기 들었다. 꿈 가운데서 미모의 청춘 남녀 金進士와 雲英을 만나 그들이 과거에 겪었던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야기의 내용은 대체로 이러

\* 이 논문은 동신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신대학교

했다.

金進士는 安平大君 시절의 文名 높은 총각 선비, 雲英 역시 大君을 모시던 절색의 궁녀였다. 金進士는 자주 大君의 초대를 받아 궁중에 드나들었는데 하루는 金進士와 大君이 詩酒를 즐기는 자리에 雲英이 시중을 들게 된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金進士와 雲英은 남몰래 戀情을 느끼게 되었고 그 후 주위의 눈을 피해 戀書로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계가 삼엄하여 서로 만날 수가 없어 그리움에 몸이 초췌해 갔다. 서로가 만나기를 갈망하며 온갖 노력을 다하던 끝에 金進士는 大君의 눈을 피해 궁궐의 담장을 넘어 雲英의 별당에 들어가는 데 성공하였다. 그 후 金進士는 밤마다 雲英의 별당에 들어가 깊은 사랑에 빠졌다. 해가 바뀌자 함께 멀리 도망하여 사랑을 계속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시도를 했으나 金進士가 부리던 노비의 배반으로 밀연은 탄로되고 말았다. 이에 雲英은 자살하고 金進士는 역시 뒤따라 죽었다. 둘은 天上으로 올라가서 사랑을 계속 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戀懷를 참을 길 없어 잠시 내려왔다고 하며 이 사연을 일일이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 주고는 세상에 영원히 전해 주기를 부탁했다. 책을 가지고 돌아온 柳泳은 슬픔에 젖어 寢食을 전폐하고 명산대천에 두루 방황하다가 종적을 감추었다.

『운영전』이 비록 궁녀 운영과 선비 김진사의 슬픈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기실 여주인공 운영에게 있어 가장 경외스런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인물이 안평대군이다. 어떻게 보면 운영이 그 연모의 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 김진사이지만 운영이 심중의 갈등을 많이 겪은 장본인은 안평대군이다. 그것은 운영이 안평대군에 예속된 궁녀이며, 궁녀는 대군과의 主從關係에서 항상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영전』에 나타난 媒介詩도 안평대군을 중심 축으로 한 궁녀들의 갈등, 고뇌 그리고 꽃다운 나이에 새장 속의 것 잃은 새가 되어버린 청춘 여성의 고독과 서정 등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처럼 궁녀들의 고뇌의 대상이 되어버린 안평대군은 과연 어떠한 인물인가? 우선 대군 안평이란 인물을 살피는 것이 이들 媒介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줄로 안다.

『운영전』 작품 모두에서 여주인공 운영이 유명에게 안평대군을 설명한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장헌대왕의 아들 8대군 가운데 안평대군이 가장 영리하고 뛰어났습니다. 임금께서는 그를 매우 사랑하여 상금을 무수히 내려주신 까닭에 전민(田民과) 재물이 대군들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대군이 13살 때 사궁(私宮)으로 나가 살게 되었는데, 그 궁 이름이 곧 수성궁입니다. 대군은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자처하여 밤에는 독서를 하고 낮에는 시를 짓거나 예서를 쓰는 등 일찍이 짧은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인과 뛰어난 선비들이 모두 수성궁에 모여들어 실력을 겨루었는데, 때로는 새벽닭이 세 번 울 때까지 학문을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대군은 필법에도 뛰어나 온 나라에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sup>1)</sup>

실제 안평대군은 소설 속의 인물과 마찬가지로 시문과 글씨가 뛰어나고 예술과 학문에 있어 그 이름이 높았던 인물이다. 성현은 『용재총화』에서 안평대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해당(匪懈堂·安平大君)이 왕자(王子)로서 학문을 좋아하고 시(詩)와 문(文)을 잘하였으며 글씨도 기이

1) 이상구,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101쪽.

하고 절묘하여 천하의 제일이었다. 또 그림과 거문고, 비파에도 능숙하였다. 성질이 또 부허방탄(浮虛放誕)하며, 옛 것을 좋아하고 좋은 경치를 즐겨하였다. 북문 밖에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또 남쪽 호숫가에는 담담정(淡淡亭)이라는 정자를 지었다. 책 만 권을 쌓아 놓고 문사(文士)들을 불러모아, 「一二경시(景詩)」를 지었으며, 또 「四八영(詠)」을 지었다. 어떤 때는 등불을 밝히고 밤에 이야기하며 어떤 때는 달밤에 배를 띄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를 짓고 혹은 장기, 바둑을 두기도 하였다. 관현악(管絃樂)의 풍악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항상 술 마시고 취해 농담들을 하니 한때의 이름난 선비들이 사귀어 놀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무뢰배(無賴輩)와 잡인(雜人)도 또한 많이 모여들었다. 바둑판과 바둑알은 다 옥으로 만들었으며 장기에는 또한 금으로 글자를 입혔다. 또 사람을 시켜 생초(生納)와 명주를 짜오게 하여 곧 붓을 휘둘러 진초(眞草)와 어지러운 행서(行書)를 쓰곤 하였다. 누가 그것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즉석에서 내주었다. 하는 일들이 이와 비슷한 것이 많았다.<sup>2)</sup>

이처럼 안평대군은 그 성격이 호방하여 경치 좋은 호숫가에 무이정사(武夷精舍)와 담담정(淡淡亭)을 지어놓고 시문과 풍류를 즐겨하여 명유(名儒)로서 교분을 맺지 않은 이가 없고 심지어는 무뢰배(無賴輩), 잡인(雜人)까지도 그의 글을 구하러 모여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며 풍류를 베풀었던 안평대군은 문종 사후 노골화된 왕실의 정권다툼에 휘말려 계유정난<sup>3)</sup> 때 강화도로 유배되어 결국은 형 수양대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비운의 인물이 된다.

앞서 운영이 유영에게 안평대군을 설명한 대목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안평은 시문과 담론, 그리고 풍류를 무척 즐겨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거처한 수성궁은 물론 그가 학업을 위해 지은 비해당까지 많은 시인과 문장가들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을 정도로 문진성시를 이루었다. 이러한 안평대군의 학문적 열정은 급기야 궁녀들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얼굴이 어여쁜 자 10명을 뽑아 가르치기에 이른다. 이때 운영 역시 뽑히게 되어 다른 궁녀 9인과 함께 대군을 모시며 그의 학문적 가르침을 받아 5년이 채 안되어 10명 모두가 盛唐시인들의 율타리를 엿볼 만한 큰 재주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안평대군은 궁녀들의 수련과정에서 그 엄격함을 더하여 궁녀들로 하여금 궁밖 세계와의 출입을 철저히 단절시켜 외부인이 그들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궁궐 밖의 사람이 궁녀의 이름을 알기만 해도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하게 했다.

그러면 왜 안평대군은 그 혹독한 수련 과정으로 궁녀들을 文才女로 만들고자 했는가? 안평대군은 자신이 지은 비해당에 성삼문이나 최홍효 등 당대에 뛰어난 문장가와 서예가들을 초청하여 그 재주를 겨루었으나 그들 모두 자신의 재주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평대군 으로서는 이점이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젊고 자색이 빼어난 10명의 궁녀를 뽑아 盛唐 시인에 버금 할 수 있는 才女로 만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궁녀에게 내렸던 업명은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대군으로서의 중세적인 절대권력을 구현하거나 그 위엄을 고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만의 독특한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다.<sup>4)</sup> 또한 실제 인물 안평대군이 『운영전』에 형상화된 안평대군과 그 모습이 너무 흡사하다는 점에서 ‘수성궁에서 이루어진 이 은밀한 才女의 육

2) 성현, 『용재총화』, 남만성 역, 대양서적, 1978, 88쪽.

3) 계유정난(癸酉靖亂): 단종1(1453)년, 계유년, 10월에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기 위해 정적 관계에 있는 김종서, 황보인 등 원로대신들을 안평대군과 공모하여 반역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모두 참살한 사건.

4)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5, 한국고소설학회, 1998, 137쪽.

성은 정치적, 사회적인 활동이 차단되거나 견제 받았던 안평대군의 정치적 욕망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었던 것<sup>5)</sup>이다.

안평대군이 궁녀들에게 좋은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고 몸소 그들을 공부시키고 부모처럼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궁녀에게 있어서 하나의 부당한 억압으로 작용했다. 기실 궁녀는 궁중내관의 정5품 이하의 궁인직을 통칭하여 부르는데 그들은 실제 유폐된 궁중에서 일생동안 독신으로 지내면서 행동에 철저한 구속을 받아야했다. 또한 그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의 출입이 금지되었고 불치의 병이 있거나 노쇠하여 퇴궐하기 전까지는 궁중에서 철저한 구속을 받으며 외롭게 살아야 했던 것이 당시 궁녀의 처지요, 본분이었다. 안평대군의 수성궁이 대궐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궁녀들이 대궐 내관과 같은 자격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군이 거처하는 수성궁에서 궁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작중인물로서 신분적인 성격은 적합하다고 본다.<sup>6)</sup>

아무튼 수성궁에 유폐되어 억압된 생활을 해온 궁녀들에게 있어서 문제의 발단은 안평대군이 10명의 궁녀를 모아 놓고 돌아가면서 五言絶句 한 수씩을 짓게 하는 데서 비롯된다.

먼저 궁녀 소옥은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錄煙細如織，隨風半入門。

依微深復淺，不覺近黃昏。

(푸른연기 비단처럼 가늘어, 바람따라 함께 궁문으로 들어오네. 흐릿흐릿 깊었다 다시 열어지니, 황혼이 가까워 옴을 깨닫지 못하네.)

궁녀 부용의 시는 다음과 같다.

飛空逢帶雨，落地復爲雲。

近夕山光暗，幽思向楚君

(공중에 날아올라 비를 두드리니. 땅에 떨어져 다시 구름이 되었네. 저녁이 가까워오자 산 빛은 어두운데, 그윽한 초(楚)나라 임금을 향하네.)

궁녀 비취의 시는 다음과 같다.

覆花蜂失勢，籠竹鳥迷巢。

黃昏城小雨，窓外聽蕭蕭。

(구름이 꽃을 덮으니 벌은 세를 잃고, 대숲에 아롱지니 새는 깃들 곳을 찾지 못하네. 황혼 녘엔 가느다란 비가 되어 내리니, 소슬한 빗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네.)

궁녀 비경의 시는 다음과 같다.

小杏難成眼，孤堇獨保青。

輕陰暫見重，日暮又昏冥

5) 정출현, 『운영전』의 중층적 애정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 1999, 95쪽.

6) 차용주, 『운영전의 갈등양상에 반영된 작가의식』, 『고소설론고』, 계명대출판부, 1985, 273쪽.

(작은 살구나무 싹 틔우기도 어려운데, 외로운 대나무 홀로 푸른 빛 간직하였네. 어둑어둑하여 문득 다시 바라보니, 어느새 날 저물어 황혼이 되었구나.)

궁녀 옥녀의 시는 다음과 같다.

蔽日輕紈細, 橫山翠帶長.

微風吹漸散, 猶濕小池塘.

(해를 가리운 구름 고운 비단처럼 가벼운데, 산을 가로질러 푸른 빛 길게 드리웠네, 미풍이 불어오자 점점 흠어지니, 이내 작은 연못만 적실 뿐이네.)

K C I

궁녀 금련의 시는 다음과 같다.

山下寒煙積，橫飛宮樹。  
風吹自不定，斜日滿蒼天。  
(산 아래 차가운 구름이 쌓이더니, 비스듬히 궁중 나무가로 날아들었네. 바람 불어 이리저리 훑날리더, 푸른 하늘에 노을이 가득하네.)

궁녀 은섬의 시는 다음과 같다.

山谷繁陰起，池臺祿影流。  
飛歸無處覓，荷葉露珠留。  
(산골짜기에 짙은 구름 피어오르니, 연못 누각에 푸른 그림자 흐르네. 날아서 돌아갈 곳 찾지 못하고, 이슬 방울 되어 연잎에 머물렀네.)

궁녀 자란의 시는 다음과 같다.

早向洞門暗，橫連高樹低。  
須臾忽飛去，西岳興前溪。  
(이른 아침 마을 어귀가 어둡더니, 비끼어 높은 나무 아래로 이어졌네. 잠깐 사이에 홀연히 날아가, 서쪽 뿔부리와 앞 시내에 걸쳐 있네.)

궁녀 운영의 시는 다음과 같다.

望遠青煙細，佳人罷織紈。  
臨風獨惆悵，飛去落巫山。  
(저 멀리 보이는 푸른 구름 고우니, 아름다운 이는 깃 짜기를 마쳤구나. 바람을 맞으며 홀로 슬퍼하더니, 날아가 무산(巫山)에 떨어졌도다.)

궁녀 보연의 시는 다음과 같다.

短壑春陰裡，長安水氣中。  
能令人世上，忽作翠珠宮。  
(짧은 골짜기 봄 그늘 속, 장안의 물 기운 속에서 일어나더니, 홀연히 사람 사는 세상을 푸른 구슬 궁궐로 만들었네.)

이처럼 ‘연기’를 韻으로 삼아 지은 궁녀 10인의 賦煙詩는 비록 안평대군의 命에 의하여 지어졌다고는 하나 궁녀들은 나름대로 그의 시에서 자신의 詩才를 마음껏 드러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詩 속에 궁궐 안 여인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宿命的 性情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한 줄기 푸른 구름이 궁중의 나무에서 일어나 성벽 꼭대기를 둘러싸기도 하고, 또 산기슭으로 날아가기도 하는 궁궐 주변의 정경이 이들 시의 주된 소재가 되

고 있지만 기실 그 아름다운 정경은 길의 모습이요, 詩의 내용은 오히려 궁녀들로 하여금 한없는 슬픔의 性情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기에 이들의 시는 더욱 진솔하고 높은 서정성을 띠고 있다.

안평대군도 이들의 시를 평하면서 “부용의 시는 초(楚)나라 임금을 사모한 것이기에 내가 매우 가상하게 생각한다. 비취의 시는 격조가 아름답고, 옥녀의 시는 생각이 뛰어나면서도 마지막 구에 넉넉한 뜻이 은은하게 깃들여 있으니…자란의 시가 생각이 심원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감탄하며 촘촘하게 하는구나…”<sup>7)</sup>라고 높이 평가했으나 그것은 궁녀들의 詩才를 키워 온 대군의 대견스러운 마음일 뿐이지 정녕 籠場 속의 새처럼 살아가는 궁녀들의 詩 속에 담긴 마음은 결코 헤아리지 못했다. 실제 이러한 궁녀들의 삶과 생활은 많은 시인들로 하여금 그 동정을 받아 왔고 또 이를 시로 읊어내기도 했다.

唐의 시인 劉方平은 그의 詩 春怨에서,

紗窓日落漸黃昏, 金屋無人見淚痕  
寂寞宮庭春又晚, 梨花滿地不開門.<sup>8)</sup>

라 하여, 궁녀들의 외롭고 쓸쓸한 생활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궁녀들에게 주어진 것은 고독만이 아니고 말과 행동에까지 철저한 구속을 받았다.

唐代 詩人 朱慶餘는 그의 宮詞에서,

含情欲說宮中事, 鸚鵡前頭不敢言  
寂寂花時閉院門, 美人相並立瓊軒.<sup>9)</sup>

이라 하여, 궁녀들이 쌓인 감회를 서로 이야기하고 싶으나 주위가 무서워 말하지 못하는 슬픔을 대변하였다.

아무튼 운영을 제외한 궁녀들의 시는 안평대군이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유독 운영이 지은 시에 ‘깁짜던 佳人의 슬픔이 巫山으로 읊아가는’ 표현에서 안평대군은 운영의 ‘思人之意’를 발견하고 이를 의심을 하게 된다. 巫山之夢은 美人과 同枕함을 꿈꾼다는 뜻으로 宋玉의 高唐賦詩

昔者先王嘗遊高唐 怠而晝寢 夢見一婦人曰 妾巫山之女 爲高唐之客矣 聞君遊高 唐願薦枕席 王因幸之 去而辭曰 妾在巫山之陽 高丘之岨 旦爲朝雲 暮爲行雨 朝朝暮暮 陽臺之下 旦朝視之如言<sup>10)</sup>

에서 나온 말이다. 이는 현실의 囹圄生活에 不滿을 갖고 슬퍼하며 다른 사랑을 꿈꾼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의 시에 나타난 ‘사람을 생각하는 뜻’이란 결국 이성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노정한 것으로서 어찌면 재기발랄한 사춘기 여성인 운영으로서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비단 운영 뿐만이 아니라 모든 궁녀에게 해당한 일일 수도 있다. 안평대

7) 『운영전』, 108쪽.

8) 차용주, 『운영전의 갈등양상에 반영된 작가의식』, 『고서설론고』, 계명대출판부, 1985. 276쪽 재참조.

9) 차용주, 앞의 책, 274쪽 재참조.

10) 소재영 『운영전의 비극성』, 『고소설통론』, 이우출판사, 1983, 400쪽 재참조.

군이 비록 궁녀에게 자상한 배려를 하였지만 그들의 가장 깊은 인간적 욕구를 이해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군의 엄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시에 사랑의 감정이 나타났다는 것은 ‘시는 성정(性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추어 숨길 수 없다’는 안평대군의 경계 그대로 인간이 지닌 욕구가 얼마나 강렬하고 억제 불가능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처럼 운영의 賦煙詩에는 이미 그의 마음 속에 비극의 싹이 움트고 있었으며 이는 또한 인욕(人慾)이 제거된 탈속(脫俗)의 상태를 최고로 여겼던 안평대군에게는 하나의 도발적 행위가 되며, 또한 운영의 사랑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무튼 부연시에 나타난 운영의 불온한 생각은 바깥세계를 차단하면서까지 몸소 유가서를 가르치는 등 궁녀들로 하여금 유교적 성정을 키우려했던 안평대군에게는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안평대군은 운영을 크게 심문하지 않고 단지 가볍게 견책하는 데 그치고 만다. 안평대군의 이러한 처사는 운영에게 각별한 감정을 갖고 있어서라기보다는 文面 그대로 그녀가 지닌 재주를 아깝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운영의 진술에서도 “일찍이 대군은 저에게 마음 둔 적이 없었으나 궁중사람들은 모두 대군이 저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시다”<sup>11)</sup>에서 보듯이 운영 스스로 대군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운영시에 나타난 思人之意가 과연 대군을 향한 마음인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 동료 소옥과 은섬은 운영으로 하여금 창밖의 포도(葡萄)를 제목삼아 七言四韻을 짓게 했다.

운영은 그의 葡萄題의 詩에서

蜚蜨藤草似龍行, 翠葉成陰忽有情.  
 暑日嚴威能徹照, 晴天寒影反虛明.  
 抽絲攀檻如留意, 結果垂珠欲效誠.  
 苦待他時應變化, 會乘雲雨上三清.

(꾸불꾸불 이어진 들풀은 용이 나는 듯하고, 푸른 잎사귀 그늘짐에 홀연히 정이 깃드네. 따가운 여름 햇살도 능히 비추기를 거두었고, 서늘한 그림자에 맑은 하늘은 헛되이 밝기만 하네. 난간을 붙잡고 뻗어난 줄기는 마음을 머무는 듯하고, 구슬을 드리운 듯한 열매 정성을 본받고자 하네, 훗날 변화할 때를 간절히 기다리니 응당 비구름 타고 삼청에 오르리...)

이라 하였다. 운영은 특히 이 시의 後句에서 현실적 만족을 노래하고, 죽어 神仙이 사는 三清宮에 오른다는 신념을 보임으로써 얼마간에 받은 의심을 葡萄詩로 풀게 된다. 그러나 운영은 이미 그의 賦煙詩에 나타난 것처럼 확실하게 思人之意가 있었으며 또 그러한 운영의 賦煙詩는 안평대군으로부터 견책을 받았으나 운영의 완강한 변명으로 그 일이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갈수록 초췌해지는 운영의 容色을 보고 그것을 염려하여 지성스럽게 묻는 궁녀 자란에게 운영은 김진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토설하게 된다. 궁녀들로 하여금 무단히 宮門을 출입하거나 외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져도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는 안평대군의 嚴令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김진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자란에게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이미 그녀들간에는 자신들의 비운을 서로 한스러워 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11) 『운영전』, 108쪽.



### III. 媒介詩의 기능과 의미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은 전술한 것처럼 안평대군의 초치(超致)로 김진사가 처음 수성궁에 왔을 때부터 그 발단이 된다. 안평대군이 김진사를 궁중에 초청하고 우연하게도 운영으로 하여금 벼루 시중을 듣게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운영과 김진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이때 운영의 나이는 17살이었으며, “낭군을 한 번 뵈고는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이 어지러웠다.”라는 그녀의 述懷에서 김진사와의 만남이 그녀에게 있어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었는지는 가히 짐작할 만하다. 운영이 비록 김진사를 사랑하고 있으나 행동이 극히 제한된 深宮에서 외부세계를 바라만 볼 뿐이었고, 김진사는 안평대군의 초청을 받지 않으면 임의대로 壽城宮을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간다 해도 안평대군이 궁녀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접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영으로서는 그저 애만 태울 뿐이다. 운영은 마침내 雪搗牋에 오연사운 한 수를 써서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김진사에게 고백하기에 이른다.

布衣草帶士, 玉貌如神仙。  
每向簾間望, 何無月下緣。  
洗顏淚作水, 彈琴恨鳴絃。  
無恨胸中願, 擡頭獨訴天

(무명옷 입고 가죽띠를 찬 선비여, 옥처럼 고운 용모 신선 같구나. 매양 주렴 사이로 바라보는데, 어찌하여 월하의 인연 맺지 못하는가? 얼굴을 씻으면 눈물은 물줄기를 이루고, 거문고를 타면 한은 줄이 되어 우네. 끝 없이 쌓이는 마음속의 願望을, 홀로 고개들어 하늘에 호소하네.)

운영의 오연사운에 ‘얼굴을 씻으면 눈물은 물이 되고, 거문고를 타면 원한이 줄에서 운다.’고 한 것처럼 戀戀한 그리움, 하늘에 泣訴하는 원한을 담은 표현은 김진사에 대한 운영의 사랑이 그녀의 심중에서 얼마나 깊이 자리하고 있는 가를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운영이 벽에 구멍을 뚫고 김진사에게 던진 이 연서는 결국 김진사의 가슴을 울리게 되고 김진사 역시 운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연서로 답하기에 이른다.

“...그대의 고운 글을 경건하게 받들긴 했으나, 다 펼치기도 전에 숨이 막히고 절반도 채 못 읽어 눈물이 글자를 적시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잠자리에 들어도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밥을 먹어도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시다. 병이 고향에 들어 온갖 약이 무효한지라...”<sup>12)</sup> 등의 절절한 사연과 함께

樓閣重重掩夕霏, 樹陰雲影摠依微。  
落花流水隨溝出, 乳燕含泥趁檻歸。  
欹枕未成蝴蝶夢, 回眸空望雁魚稀。  
玉容在眼何無語, 草綠鸞啼淚濕衣。

(깊고 깊은 누각에 저녁 사립문은 단혔고, 나무 그늘과 구름 그림자는 온통 흐릿하기만 하네. 베갯머리에 누워도 호접몽 이루지 못하고, 공연히 눈을 돌려 오지 않을 소식 기다리네. 구슬 같은 얼굴 눈앞에 있는데 어

12) 『운영전』, 123쪽.

찌 말이 없는가? 푸른 숲에서 우는 피꼬리 소리에 눈물로 옷깃 적시네.)

이처럼 김진사의 칠운 화답시는 운영에 대한 절절한 사모와 쉽게 만나지 못한 슬픔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운영전』에서 보여지는 운영과 김진사 간의 ‘漢詩의 和答’은 로맨스의 진전 또는 사건 전개에 중요한 매듭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漢詩의 화답을 통한 스토리 전개는 『金鰲神話』에서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금오신화』의 「李生窺牆傳」에서 書生인 李生이 길을 가다가 崔氏처녀가 읊는 詩를 듣고 흥분을 견디지 못하여 흰 종이에 시 세수를 지어 담너머로 던져주는 장면은 작품에서 사건의 발단 역할을 하고 있다.

巫山六六霧重回 半露尖峰紫翠堆  
惱却襄王孤枕夢 肯爲雲雨下陽臺

相如欲桃卓文君 多少情懷已十分  
紅粉牆頭桃李艷 隨風何處落繽紛

好因緣邪惡因緣 空把愁腸日抵年  
二十八字媒已就 藍橋何日遇神仙

「李生窺牆傳」에서 이생과 최처녀는 이렇게 漢詩를 종이에 적어 담너머로 건네 받으면서 사랑을 성숙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운영전』에서도 漢詩의 和答를 통해 사랑의 진전은 물론 사건의 전개 및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암시가 이루어진다.

아무튼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은 궁중이라는 높은 벽과 안평대군의 엄한 경계에 부딪혀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 슬픔을 연서로서만 나눌 뿐이었다. 운영의 시에 사람을 그리워하는 의미가 더욱 뚜렷해지고 대군의 청으로 지은 김진사의 상량문에도 그러한 기미가 보이자 안평대군은 김진사를 경계하는 한편, 학업의 전일(專一)을 위해 10명의 궁녀를 분리하여 운영 등 다섯 궁녀를 西宮에 거처케 한다.

김진사에 대한 운영의 고백을 들은 자란은 운영이 김진사를 만날 수 있는 계책을 세우게 된다. 그것은 궁중에서 매년 중추절에 당춘대에서 이루어지는 완사(浣紗)의 장소를 소격서동(昭格署洞)으로 옮겨 운영으로 하여금 김진사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계획이었다. 浣紗 장소를 둘러싼 궁녀들 간의 논란이 있었으나 자란의 설득으로 모든 궁녀의 도움 속에 운영은 궁문을 나와 꿈에 그리던 김진사를 궁밖에서 만나게 된다. 이후로부터 김진사는 노비 특의 주선으로 밤마다 월장하여 운영이 있는 서궁에서 雲雨之情을 나눈 뒤 새벽이면 궁궐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김진사는 ‘좋은 일이 끝나면 화가 이를 것’이라는 생각에 늘 두려워하다가 노비 특으로부터 운영의 탈출 주문을 받고 그 계획을 도모하게 된다.

이때 안평대군은 비해당의 현판글씨를 얻기 위해 김진사를 초청하여 그의 글을 얻게 되는데, 그 시에 ‘담장을 쫓아서 그옥이 풍류(風流曲)를 흠치네.’라는 구절에서 안평대군의 의심을 사게 된다. 안평대군으로부터 의혹의 눈길을 받게 된 김진사는 운영에게 월궁 계획을 최측하고 운영 역시 이 같은 사실을 형제처럼 지내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준 자란에게 알리게 된다. 그러나 운영의 이러한 월궁 계획은 자란에 의해서 강력히 거부당하게 된다. 자

란의 말을 들어보자.

서로 줄긴 지 오래 되어서 이제 스스로 화를 빨리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1, 2개월 서로 사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어떻게 사름으로서 차마 담을 넘어 달아나는 것을 저지르려고 하느냐? 주군이 너에게 마음을 기울이신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둘째 이유요, 부인이 사랑하심이 매우 깊으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셋째 이유요, 죄가 서궁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그것이 떠날 수밖에 없는 넷째 이유이다. 게다가 천지가 곧 하나의 그물인데, 하늘로 오르고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달아나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꿈의 징조가 상서롭지 못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만약 꿈이 길조였다면 너는 기꺼이 가려 했더냐? 네가 할 일은 마음을 굽히고 뜻을 억누르며, 정절을 지키고 편안히 앉아서 하늘의 뜻에 귀 기울이는 것뿐이다. 네가 점점 나이가 들어 늙게 되면 주군의 은혜와 사랑이 점차 느슨해 질 것이다. 이러한 형편을 보고 있다가 칭병하고 오래도록 누워 있으면, 주군께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때 낭군과 함께 손을 잡고 돌아가 백년 해로하는 것보다 좋은 계획이 없으리라. 이러한 생각은 하지 않고 감히 도리에 어긋난 죄를 내니, 네가 누구를 속이며 하늘마저 속이려하느냐?<sup>13)</sup>

운영을 처음부터 도와 온 자란의 반대는 분명 의외이다. 자란은 그 반대 이유로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을 두세 달로 마쳐야 할 불장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과 안평대군이 오래 기울인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크게 들고 있다. 이러한 자란의 반대로 운영의 탈출계획은 결국 포기된다.

한편 김진사는 안평대군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求愛를 받자 그때까지 환대해 주던 안평대군을 저버리고 夜陰을 틈타 수성궁의 담장을 넘나들며 운영을 만났고, 또 그러한 행동에 불안을 느끼자 운영과 함께 멀리 달아나기 위해 운영의 의복과 寶貨를 외부로 搬出시켰다. 김진사 역시 운영과의 사랑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였기에 이 둘의 탈출계획은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성궁 탈출을 운영이 포기한 것은 결코 자란의 반대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결코 대군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뒤에 김진사의 노비 특의 간계로 수성궁 탈출계획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운영이 안평대군으로부터 문초를 받게 되자 그녀는 스스로 죽기를 자청한다. 운영이 대군에게 올린 招辭를 보면,

주군의 은혜는 산과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능히 정절을 고수하지 못한 것이 저의 첫 번째 죄입니다. 지난날 제가 지은 시가 주군께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도 끝내 사실대로 아뢰지 못한 것이 저의 두 번째 죄입니다. 죄 없는 서궁 사람들이 저 때문에 함께 죄를 입게 된 것이 저의 세 번째 죄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큰 죄를 짓고서 무슨 면목으로 살겠습니까? 만약 죽음을 늦춰 주실지라도 저는 마땅히 자결할 것입니다. 처분만 기다립니다.<sup>14)</sup>

운영은 자신의 죄를 언급하면서 산과 바다 같은 대군의 은혜를 입고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과 또한 대군의 의심을 받고도 직고(直告)하지 못한 점을 크게 들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운영이 정절을 운운한 사실이다. 그러면 운영의 이러한 언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운영은 13살 어린 나이에 수성궁에 들어와 안평대군과 그 부인으로부터 마치 친자식처럼

13) 『운영전』, 145쪽.

14) 『운영전』, 153쪽.

각별한 사랑을 받아왔다.<sup>15)</sup> 더욱이 궁녀라는 신분이 천민이든 양민이든 간에 한 번 궁녀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의 신병은 궁중의 주군(主君)에게 소속되어 평생을 두고 궁주(宮主)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요, 운명이다.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하잘 것 없는 자신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안평대군 내외는 궁녀인 운영을 친자식처럼 자애해 왔으며 거기다가 몸소 대군 스스로 궁녀를 가르치어 학문과 시문에 능한 문인재녀(文人才女)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운영에 있어 대군은 단순한 궁주(宮主)만이 아닌 부모와 같은 존재요 스승과 같은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운영이 정절 운운한 것은 평생을 목숨 바쳐 모셔야 할 궁주로서의 주군(主君), 부모와 스승 같은 대군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사실 안평대군은 운영의 불온한 애정행각을 여러 번 눈치채면서도 이를 번번이 용서하였다. 물론 그것은 안평대군의 운영에 대한 마음이 아주 각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평대군의 이 각별한 마음을 운영을 향한 애정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비록 궁녀이나 인간의 재능을 키우는데 귀천(貴賤)을 두지 않으려 했던 안평대군의 진보적 사고일 수 있으며, 13살 어린 나이로 궁궐에 들어온 운영을 자식처럼 돌보아 온 안평대군의 부성(父性)과 같은 것이다.

안평대군이 궁녀들을 문초하는 자리에서 수성궁 탈출계획에 연루된 서궁의 궁녀들은 한결같이 죽기를 자청하고 나선다. 그들은 형장(刑杖)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서릿발같은 기세로 대군을 향해 항변하였다. 먼저 은섬은 그의 초사(招辭)에서 “인간의 정욕은 음양의 이치에서 오는 자연스런 정욕인데 심궁(深宮)에 윤패되어 정욕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여 꽃을 보고도 눈물을 가리우며 달을 봐도 낮을 잃고 또한 투기의 정을 이기지 못하여 매화나무의 피꼬리도 짝지어 날지 못하게 하며 나는 제비도 양소(兩巢)를 얻지 못하게 한다 한번 궁장(宮牆)을 넘으면 인간의 낙(樂)을 알고 금석(錦席)의 즐거움도 있으나 대군의 위엄에 놀려 마음을 펴지 못하고 시들어 죽게 되었다”<sup>16)</sup>고 호소하고 있다. 운영을 가장 많이 도왔던 자란 역시 그의 초사에서 남녀의 정욕이 궁녀라고 해서 없을 수 없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욕 불가피론을 들어 대담하게 항변하였다. 또한 이러한 초사는 옥녀, 소옥도 같은 어조로 호소되었다. 이처럼 목숨을 건 궁녀들의 초사에 그들을 죽음으로 치죄하려 했던 안평대군은 점차 노기(怒氣)를 풀고 운영만을 별궁에 가둔 채 다른 궁녀들은 모두 풀어주었다. 그러나 운영은 그날 밤 별궁에서 목을 메어 자결하고 만다.

대군의 분노가 점차 풀어져서 저를 별당에 가두고 그 나머지 사람은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단수건에 목을 메어 자결하였습니다.<sup>17)</sup>

안평대군이 이처럼 궁녀들을 풀어 준 것은 남녀의 정욕이 하늘로부터 품수 받은 것이라는 궁녀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평대군은 운영을 별당

15) 운영은 김진사에게 준 편지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13세가 되어 주군이 부르신 까닭에 부모님을 이별하고 형제를 멀리한 채 궁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 매일 흐트러진 머리와 매물은 얼굴을 하고 남루한 옷을 입어 보는 사람이 더럽게 여기도록 했습니다. 제가 뜰에 엎드려 우니 궁인들이 ‘한 떨기 연꽃이 저절로 뜰 가운데서 피었구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인이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하시고 주군도 저를 심상(尋常)하게 보지 않으시니, 궁중 사람들 가운데 저를 골육(骨肉)처럼 친애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한 번 학문에 중사하게 된 이후부터는 자못 의리를 알고 음률을 살필 수 있게 된 까닭에 궁인들이 모두 저에게 경복(敬服)하였습니다.”(『운영전』, 135쪽)

16) 『운영전』, 150~151쪽 요약 발췌.

17) 『운영전』, 153쪽.

에 가두었고 운영은 결국 자결하고 만다. 운영이 자결한 지 얼마 뒤에 김진사 역시 세상 일에 뜻이 없어 스스로 閉食한 4일 만에 세상을 뜨고 만다.

이 작품의 마지막에서 죽은 운영과 김진사의 두 혼령이 유생을 만나 그들의 슬픈 사연을 다 토설한 뒤 김진사는 술에 취해 운영의 몸을 의지한 채 다음과 같은 시를 읊는다.

洛花宮中燕雀飛, 春光依舊主人非  
 中宵月色涼如許, 碧露未沾翠羽衣  
 (꽃이 진 궁중에 제비와 참새가 나니, 봄빛은 여전하나 주인은 아니로다. 밤 하늘의 달 빛은 이렇듯 서늘한데, 푸른 이슬은 푸른 깃털 옷을 적시네.)

운영이 이어서 읊었다.

古宮花柳帶新春, 千載豪華入夢頻.  
 今夕來遊尋舊跡, 不禁哀淚自沾巾  
 (고궁의 꽃과 버들은 새로이 봄빛을 띠었는데, 호화롭던 오랜 옛일 자꾸만 꿈속에 드네. 오늘 저녁 옛 자취를 찾아와 노니, 슬픈 눈물이 절로 수건 적심을 금하지 못하네.)

古家를 찾아와 옛날의 호화롭던 추억을 더듬는 애처러운 마음이 김진사와 운영의 시에 모두 서려 있다. 다만 이 시에 묻힌 풍류의 황량한 주인공 안평대군은 시 이면에 숨어버리고 오로지 슬픈 인연으로서 아름다웠던 고궁에서의 옛날을 회고하는 것으로 이 시는 작품의 끝을 맺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回顧詩에서 賦煙詩로, 부연시의 긴장이 다시 葡萄詩에서 누그러졌다가 金進士의 시가 운영의 애정을 촉발하여 운영과 김진사의 응답 속에서 애정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 아무튼 운영이 김진사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계기나, 운영이 사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있다는 것을 안평대군이 알게 되는 계기, 그리고 김진사가 匪懈堂 上樑文에서 風流를 도적하리란 문구를 씌으로써 안평대군의 의심을 받게 되는 계기등이 모두 한시 화답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漢詩 和答을 포함한 媒介詩들은 사건전개의 매듭역할이나 사건에 대한 암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 장애요소의 등장, 모험시도, 그리고 실패로 인한 죽음 등 급박한 사건 전개까지 도모하게 된다. 따라서 그로 인하여 형성된 긴장구조가 상승곡면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견제해 주고, 또 그것을 완화시켜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역할도 이 매개시가 아울러 떠맡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雲英傳』 작품에 나타난 매개시들은 그 풍류의 멋을 느끼게 하면서 스토리 전개에 대한 템포의 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험을 통한 사랑성취형 이야기에 있어서 긴장과 이완이라는 두 서사 구조의 템포를 적절히 조절하여 소설 속에서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든 均衡과 調和의 詩的 優雅美를 한껏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 IV. 맺음말

조선조 비극소설로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에 서있다고 볼 수 있는 『운영전』은 궁중이라는 특수한 배경과 궁녀와 선비의 사랑이라는 특수한 소재를 취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실제 역사적 인물인 안평대군이 작품 속의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는 점에서 독자와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이 작품이 운영과 김진사의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주된 테마로 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앞서 가장 주목되게 여겨지는 것은 작품의 서사적 구성이다. 그것은 이 작품이 傳奇的 敘述외에 構成의 主媒介가 詩로 연결되어 詩가 主가 되고 오히려 스토리의 구성이 詩意에 따라 전개되어지는 것이 가장 흥미로운 특징이 아닐 수 없다.

『운영전』에 나타나는 媒介詩는 전부 18수의 漢詩로 되어 있다. 이를 형태별로 보면 五言 絶句 10수, 七言 絶句 3수, 五言 律詩 2수, 七言 律詩 3수이다. 이중 15수가 작중인물인 궁녀들이 지은 것이다. 이들 궁녀들의 시는 궁궐 주변의 정경을 묘사한 서경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궁녀들의 눈에 비친 아름다운 궁궐 주변의 정경은 단지 걸의 모습ियो, 詩 내용은 오히려 궁녀들의 한없는 슬픔의 性情을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籠場 속의 새처럼 평생을 궁궐에 갇혀 살아가야 하는 숙명적 여인의 한숨이 깊게 서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주인공 운영의 漢詩에는 안평대군이 가장 禁忌視 했던 思人之意가 표현되어 문제의 발단이 된다. 운영의 이 思人之意는 곧 선비 김진사를 향한 운영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서 이 작품의 주된 사건의 배경이 된다. 운영의 시에 나타난 이 ‘思人之意’는 이성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노정한 것으로 제기발랄한 사춘기 여성으로서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것은 비단 운영 뿐만아니라 모든 궁녀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시는 성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추어 숨길 수 없다는 안평대군의 경계처럼 인간이 지닌 욕구가 얼마나 강렬하고 억제 불가능한가를 운영의 賦煙詩에서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운영의 부연시가 곧 안평대군으로 하여금 의심을 사게되고 이를 안 김진사는 급기야 운영의 탈출계획을 도모하면서 사건은 급진전된다. 이처럼 운영을 비롯한 궁녀들이 지은 부연시는 『운영전』 작품 구성에 있어 사건 전개와 함께 더 할 수 없는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그러나 운영과 김진사의 탈출이 노비 특의 간계로 탄로나고 탈출을 도모한 운영과 이를 도운 궁녀들이 안평대군에 의해 문초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안평대군에게 올린 招辭에서 조금도 굽힘이 없이 인간 정욕의 불가피론을 주장한다.

媒介詩 가운데 운영과 김진사간의 漢詩의 和答은 마치 『金鰲神話』의 「李生窺牆傳」에서 李生과 崔氏 처녀가 漢詩를 적어 담너머로 건네 받으면서 사랑을 성숙시키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이러한 모티브는 『金鰲神話』의 영향을 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한시의 화답을 통해서 운영이 김진사와 사랑을 느끼는 계기나, 운영이 사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있다는 것을 안평대군이 알게 되는 계기, 그리고 김진사가 匪懈堂 上樑文에서 風流를 도적하리란 문구를 씌으로써 안평대군의 의심을 받게 되는 계기, 또 슬픈 인연으로서 죽은 운영과 김진사의 혼백이 유생을 만나 고궁에서의 추억을 회고하는 등 사건 전개에 대한 작품의 총체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운영전』에 나타난 漢詩 和答을 포함한 모든 媒介詩들은 단순히 挿入詩가 지닌 단순한 律文的 效果만이 아닌 실제로 사건전개의 매듭역할이나 사건에 대한 암시,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 혼사 장애유발, 모험시도, 실패로 인한 죽음, 그리고 생전의 슬픈 인연에 대한 회고 등의 스토리 구성과 함께 긴장과 이완의 템포 조절을 통한 사건 전개를 통해 고소설에서는 그 유례를 보기 힘든 均衡과 調和의 詩的 優雅美를 자아내고 있는 것에서 『운영전』에 나타난 媒介詩가 갖는 詩的 機能과 그 意味는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문헌

『조선왕조실록』

『동문선』

『용재총화』

『연려실기술』(고전국역총서 4권), 민족문화추진회, 1998.

김상기, 『한시의 이론』, 고려대 출판부, 1997.

이상구,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김일렬, 「운영전에 나타난 사랑과 세계관적 고민」, 『조선조소설의 구조와 의미』, 형설출판사, 1987.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들녘, 1966.

박일용, 「운영전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설성경·박태상, 「운영전에 나타난 사랑과 죽음의 의미」,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6.

성현경, 「운영전」, 『고소설연구』 2, 태학사, 1998.

소재영, 「운영전의 비극성」, 『고소설통론』, 이우출판사, 1983.

신경숙, 「운영전의 반성적 고찰」, 『한성어문학』, 한성대, 1990.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5, 한국고소설학회, 1998.

정출현,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 1999.

차용주, 「운영전의 갈등양상에 반영된 작가의식」, 『고소설론고』, 계명대출판부, 1985.

<Abstract>

A study on the chinese poems in Unyoungjeon

Kim, Kui-suck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chinese poems in Unyoungjeon.

The form of poems are 18 part lined chinese quatrain. As for Unyoungjeon's chinese styled poem. We can notice that 18 lined chinese poem quatrain and they are also very excellent.

What do they Unyoungjeon chines poems really mean? They are of beauty of nature and life. They are full of feeling emotion and ideas.

The tragedy Novel in Unyoungjeon are very means. The study above may contribute to identifying part of aesthetic and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Unyoungjeon chinese poems.

Key words : chinese poems, dreams and ideal, consciousness of history

<논문투고일 : 2003.12.31 심사완료일 : 2004.1.31. 게재확정일 : 2004.2.14>